

안 그래픽스 인쇄, 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	---	--	--	---	--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 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미소 치과 남상우 시론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	--	---	--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김세희 소화테라사 김상운 요셉 678-835-9550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	-------------------------------------	--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Suwanee ORTHODONTICS 스완니 교정 치과 Elevate Your Smile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주말 예약 가능 카톡상담(Suwaneeortho)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	--	--

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	---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만천홍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	---	--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	---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벌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RIVERBEND 리버밴드 오토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	--	---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	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	--

이틀린티 주보

이틀린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2년 10월 30일
NO.2171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SCAN ME



<Zacchaeus> Stained glass window (detail) in the Catholic parish church of Saint-Pierre in Neuilly-sur-Sein

연중 제31주일				미사 시간 안내	
성 가	입당: 2	봉헌: 220	성체: 188/155	파견: 452	주일미사
제1독서	지혜서 11,22—12,2 주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청년미사(토) 5:30pm
화답송	시편 145(144), 1-2, 8-9, 10-11, 13-14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아침미사 8:30am
제2독서	테살로니카 2서 1, 11—2, 2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교중미사 10:30am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영어미사 12:15pm
복음	루카 19, 1-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평일미사
영성체송	시편 16(15), 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1-10)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마침 거기에 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3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4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②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5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③ .
 오늘은 내가 네 ④ 에 머물러야 하겠다.”
 6 ⑤ 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7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⑥ 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8 그러나 ⑦ 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⑧ 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명령하였다면 ⑨ 곱절로 갚겠습니다.”
 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⑩ 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⑪ 하러 왔다.”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자캐오를 보면서 웬지 모를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 옆은 쳐다 보지 않고 오로지 위만 바라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 왔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합니다. 이 천년 전 당시의 예리고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산항 정도 되겠네요. 돈과 사람과 물자가 물려드는 화려한 장소. 거기 세관장이라 하니 실력을 인정 받아 출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 까지 올라 가기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요. 더우기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관리로 살았으니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은 종파나 계파에 관계없이 매국노로 치부하며 멸시와 조롱을 던지며 죄인 취급을 했겠죠.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우리는 이게 자캐오에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 줄 아실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자캐오 본인에게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Biggest Complex 임은 의심의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자캐오가 키가 매우 작음을 묘사합니다. 자캐오가 지니고 있었던 또 하나의 Complex입니다. 저 역시 크고 작은 다른 모습의 Complex로 고민하고 좌절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자캐오는 지독한 외로움과 철저히 사람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고민 했었을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동네 어귀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 나갑니다. 가까이서 보려고 무화과 나무 위에 까지 올라갑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구박받고 했겠지요.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 나옵니다. 이 때 예수님이 “자캐오야”하고 부르십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가슴이 쿵쿵쿵 뛰입니다. 뒤 이어 “오늘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십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정겨운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상대방과 오해가 생겨 진심을 보여 줄려고 해도 믿지 않아 가슴앓이 한 적이 있죠.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남들이 죄인이라 돌을 던져도 그 분께 가까이 다가 가면 용서해 주시고 께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밝은 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서 11장의 말씀이 크게 울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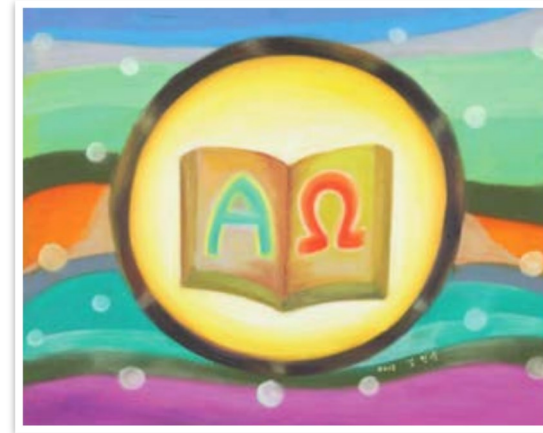
| 성 찰 |

살아 오면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본 것은 어떤 때 었습니까?

전례와 신앙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의 하나는 모든 전례에 있어서 모든 참석자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미사 집전자는 예절을 시작할 때, 예절 중에, 그리고 예절을 마칠 때 참석자들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바로로팔콘텐츠

미사 때에 집전 사제와 신자들은 이 인사를 다섯 차례 나눕니다. 미사 시작할 때, 복음 봉독 전에, 성찬 전례의 감사기도를 시작할 때, 영성체 전 평화의 인사 때, 그리고 미사가 끝나기 전 강복을 받을 때입니다. 이 인사는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전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운데 예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며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유혹에 동참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인사를 통하여 구세주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집전자의 입과 말을 통하여(in persona Christi) 신비적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모든 전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서는 미사를 통하여 신자들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할 때는 주님의 현존을 새롭게 상기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봉독되기 전에는 들으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감사기도가 시작될 때에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파견되기 전에는 미사 때 받은 기쁨과 희망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평화 자체이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돈으로 사거나, 무력으로 쟁취하거나 또는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당신의 피와 죽음으로 가져다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보장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체험되고, 결코 변질되지 않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는 오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정다운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도 참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담은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이한택 주교, 가톨릭 전례학회)

복음화를 위한 기도

-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 아멘.

복음서에 나타나는 ‘복음화’의 의미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고 말씀하시며 당시 친히 나자렛 회당에서의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이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 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 18-19)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 졌다”(루가 4, 21)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로 묵어있고 눈먼 이들을 만났다. 세리였던 자캐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를 따랐고, 악령 들린 이가 예수님을 만나 새사람이 되어 예수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절름발이와 나병 환자들과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드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셨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받고 억눌린 이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모든 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화’이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내 삶과 가정, 내 이웃과 나라가 복음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화인 것이다. 성서에 나타나는 복음화는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 받고 억눌린 이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화는 복음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 실현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실, catholic.or.kr/pds>

아 < 루카 19,1-10 >
배영길 베드로 신부

“아! 그래, 이거지.”

“아! 그랬구나.”

그런 순간이 오겠지.

지금은 기다리자. 여기서.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 ①자캐오 ②올라갔다 ③내려오너라 ④집 ⑤자캐오
- ⑥죄인 ⑦자캐오 ⑧반 ⑨네 ⑩구원 ⑪구원



10월 23일 (일) 성인 예비자 교리반

장중근, 서정민, 최다혜, 홍정희, 홍서훈

예비자들과 예비자 교리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23일 (일) 주일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영성강의

김성현 라파엘 신부님 주제: 하나되게 하소서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기를 기원하고 다짐하며 기뻐하는 날, 성인들의 축일이자 세례명을 가진 모든 이의 축일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적인 희망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가르치신 것도 이 때문이다. 곧 ‘거룩한 사람’, ‘성인(聖人)’이 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갈구한다. 영원에 대한 희망이 성덕을 쌓게 하고, 또 그러한 모범을 보인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전구(기도의 도움)를 구하게 한다.

교회에는 성인이 많이 있다. 처음에는 순교자들을 공경하였고 이어서 증거자, 주교와 성직자, 동정녀, 교회학자, 수도자와 선교사, 더 나아가 사회사업가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성인으로 공경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시대의 그릇된 가치관을 거슬러 복음 정신을 실천한 이들이 교회에서 공경되어 성인으로 선포된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일로 삼는다.

또한 교회 역사 안에는 일찍이 순교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거나, 한평생 거룩한 삶을 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하느님만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익명의 성인들이며 이들에 대한 공경도 시작되었다. 그래서 4세기의 한 전례력에서는 부활 팔일 축제 중 금요일에 모든 성인의 축일을 지냈다. 7세기에는 성모님과 모든 성인을 공경하여 로마의 판테온(만신전)을 성전으로 봉헌하였고, 그 봉헌일인 5월 3일에 이 축일을 지냈다.

이후 8세기에는 영국에서 11월 1일에 모든 성인 축일을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이 관습이 널리 퍼져나가 이날은 모든 성인을 공경하여 기념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날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인의 날’ 축일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인이 이 축일을 통해 공경받는 것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성인들의 축일이자, 세례명을 가진 우리 모든 이의 축일이다. 그분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기를 기원하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며 기뻐하는 날이다. 그것은 수많은 성인의 무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기(제1독서) 때문이다.

이날은 모두 기쁘고 즐거워한다.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마련되어 있기(복음) 때문이다. 곧 하느님 나라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의 참모습을 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제2독서). 이 날을 지내면서, 자신의 주보 성인을 기억하자. 성인의 축일을 지내며 주님을 모신 것을 즐거워하자(입당송). 성인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되새기며, 그 모범을 따라 살기로 다짐해 보자. 그분들의 전구를 통해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자. 아울러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자(감사송). 우리의 노력, 성인들의 전구, 하느님의 도우심의 손길, 축제를 지내며 함께 기뻐하는 자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우리도 성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 보자.

나기정 신부, cathol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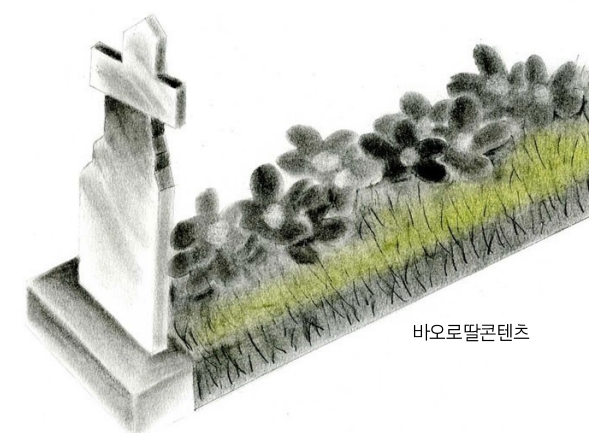
위령기도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바로로말콘텐츠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특별히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 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1월 1일부터 8일부터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일) 주일학교

KIDS CORNER



CLC 주관 1일 침묵피정 접수

11월 12일 토요일 김성현 보좌 신부님 지도로 일일 피정이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성모회 물품판매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기금 모금을 위한 물품 판매가 있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접수

2023년 1월 4박 5일 일정으로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

교중미사(10:30am)...	223명	주일헌금	\$ 3,477.00
아침미사(08:30am)...	68명	주일헌금(온라인) ..	\$ 195.00
영어미사(12:15pm)...	89명	교무금	\$ 3,570.00
청년미사(05:30pm)...	45명	교무금(온라인)	\$ 1,000.00
미사참례 총	425명	감사헌금	\$ 0.00
		성물방	\$ 559.60

교무금 명단

김현길 (9~10)	서재욱 (10)	장승희 (10~11)
김홍섭 (10~11)	손아혜 (6~10)	정건호 (10)
문명재 (8~10)	송창률 (8~11)	주인국 (10)
박영희 (10)	양희영 (10)	황등현 (10~12)
박재영 (10)	이강연 (10)	
박찬규 (10)	이덕환 (10)	
변성주 (10)	이성철 (8~10)	

- ###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봉헌시 이름과 신자 번호, 봉헌 내역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박두환	양재준	장민재
강용조	박종홍	오상수	전근섭
곽흥배	배정희	이동춘	전 홍
김남우	백현숙	이복화	정용선
김루시아	손철영	이봉조	정지윤
김영철	서상희	이수진	정창래
김일환	서재욱	이승구	조보현
김태규	서혁규	이주미	조성환
김향순	석대진	이창호	지승남
김홍섭	설재규	이흥규	차영수
김 훈	송용덕	이흥철	최동순
남상우	심충섭	이현두	한성인
문명재	양경직	이현옥	허민환



- ###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1. 마스크 착용은 자율
 2. 미시간 응송 가능
 3. 고해성서는 사제 사무실에서
 4.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5. 미사 관면이 가능한 경우(아들란타 교구 지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 ###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아마존 스마일 프로 그램은 구입금액의 0.5%를 본당으로 보내어 션이 됩니다.
 - 이용방법: smile.amazon.com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2022년 AA 기금

2022년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

교구 할당액	\$ 54,300.00
달성률	103.6%
누계 약정액	\$ 22,500.00
누계 납부액	\$ 56,238.00
금주 납부액	\$ 250.00

2022 AA 기금 납부자

박송자	손철영	황등현
-----	-----	-----

구역미사

11/4 (금) 7:30 pm	Sharon Springs 구역 양재준 프란치스코 770-626-1317
11/11 (금) 7:30 pm	Marietta 사랑 구역 고창민 클레멘스 404-729-4345
11/18 (금) 7:30 pm	Marietta 나눔 구역 김진용 발렌티노 678-478-7830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0/29 (토) 오후 5:30	김주환	김범수 신경아	김아론 이다은
10/30 (일) 오전 8:30	김현숙	김현구 류호신	성리디아 김서중
10/30 (일) 오전 10:30	이진화	최창희 김선민	박지현 김매튜 양다해
10/30 (일) 오후 12:15	Deborah	김소현 이재은	박재호 이재후
11/5 (토) 오후 5:30	이재돈	서현규 박주현	김태훈 최지오
11/6 (일) 오전 8:30	이진화	서상희 서정원	소현서 양다현
11/6 (일) 오전 11:00	이경환	최창희 김선민	최예은 전지우 도렉스
11/6 (일) 오후 12:15	김태훈	Derek Lydia	남소호 이다은

본당 캘린더

11월 1일	• 모든 성인 대축일(의무축일)
11월 2일	• 위령의 날 미사
11월 5일	• Memorial 야외 위령 미사 • 가을 음악회
11월 6일	•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11월 20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 24일	• 추수감사절
11월 26일	• 대림의 밤

청년미사 장소 변경 안내

11월 5일 토요일 청년미사는 소성당에서 오후 5시 30분에 봉헌됩니다.

11월 위령 성월

죽은 모든 이를 위한 위령의 날 미사

- 일시: 11월 2일 (수) 7:30pm
- 장소: 대성전

Memorial 야외 위령 미사

- 일시: 11월 5일 (토)
연도-10: 30am | 미사 봉헌-11:00am
- 장소: Georgia Memorial Park at Marietta
2000 Cobb Parkway SE, Marietta, GA 30060
- 문의: 조보현 404-422-0091

▶ 11월 신심미사는 없습니다.

2차 헌금

ARCHDIOCESAN SEMINARIANS

- 일시: 11월 5일(토)/ 6일(일)

일광 절약 시간 해제 날짜 안내

- Daylight Saving Time Ends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늦춰집니다.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금마련 잡곡판매

성모회 판매: 참기름,다시마,도토리국수,취나물 등등

- 일시: 매주 교중 미사후

행사 및 모임 안내

- 구역장 회의
일시: 11월 6일 (일), 11:30am, 112호
문의: 김영경 에스더 770-676-8672
- 꾸리아 월례 회의
일시: 11월 13일 (일), 12:30pm, 소성당
문의: 왕미카엘라 352-359-4283
-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11월 13일 (일), 12pm, 113호
문의: 이숙자 678-665-3882

본당 알림

-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례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알루미눔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상반기 주보 광고비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 관련 문의 : kmccga.bulletin@gmail.com
- 본당 성물방 시간 :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당가능)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시간: 매주 일요일, 10:30am~12:00pm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 대건 한국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9:15am~12:30pm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내용: 마르티니 추기경님의 '모세의 일생'
기간: 11월 10일 부터
일시: 매주 목요일 6:00pm -7:00pm
장소: 대성전
문의: 이혁률 404-518-7373
임혜수 404-246-8142

2022-2023 예비자 교리반

- 수업시간: 매주 일요일 9:00am
- 수업장소: 112호
- 수업 외 일정: 본당 입교식/선발식/수도원 방문/수련식/세례 견진 성사/환영식
- 문의: 나상숙 678-933-7313 서미영 404-610-0057

말씀으로 기도하기 101

- 주최: ATLANTA KCLC
- 기간: 10월 5일-11월 23일
- 시간: 매주 수요일 6:00-7:00pm
- 장소: 소성당
- 문의: 박철민 리나 404-519-4604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안내

- 일시: 11월 6일 (일), 소성당
- 진료시간: 12:30 ~ 2:30pm
- 진료 과목 : 내과 |지승남
비뇨기과 | 전홍 (휴가)
치과 | 김보근, 김범수
한방과 | 양경환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 진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들도 무료 참여
진료시 당뇨 검사를 위해 6시간 공복유지
피검사는 11월6일, 12월4일 실시하며 2023년부터 중단
문의: 김지형 404 988-8882 서병익 706-583-4096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득(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리아)
박정자(테레사)	채종현(아오스당)
박평하 (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유옥희(모니카)	최순례(아나타시아)
이기산(스테파노)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 지난 10월 25일故 이상남(마리아)님의 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10월 28일故 소근화(토마스 아퀴나스)님의 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 애틀란타 일일피정

햇살처럼 내가 다가오는
하느님 자비

대상: 전신자
지도사제 : 김성현 라파엘 신부님, S.J.
주관: CLC
일시: 11월 12일 토요일 9:00am-3:00pm
장소: 애틀란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대성전
문의: 박철민 리나 404-510-4604 배송자 루시아 678-665-5400
접수: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비: \$20 (점심 제공)

A Bridge to Hope

본당 청년 World Youth Day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가을 음악회

November Saturday 5 | 7:30pm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대성전

미사후 티켓 판매 \$10

브릿지메스 찬양팀
피에타 성가대
소리사랑 성가대
영어미사 밴드
SAKC Youth Band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모집

출발: 2023년 1월 30일 (4박5일)
지도신부: 구동욱 마카엘 신부

모집인원: 30명
접수마감: 2022년 12월 11일 까지
순례비용: 순례비, 항공료 포함 \$1744.79

문의: 김홍준 로마노 770-895-1000
mymoohan@gmail.com
접수: 성당 주일 미사후 친교실